

동신대, 제주도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체험 캠프 진행

총장·학생들, 환경 보호 활동도

동신대학교 총장과 학생들이 제주도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사진) 동신대(총장 이주희)는 교양 수업 '해인인성II'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체험 캠프 & 나눔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주도에서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나눔과 실천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봉사자와 나눔 활동, 지구환경 지키기 실천 활동이 우수한 재학생 28명이 이주희 총장과 지난 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첫 날과 둘째 날에는 제주 올레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클린투어를 진행했다. 또 사단법인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이사의 '제주올레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 특강을 듣고, 재활용 플라스틱 팩토리를 견학하며 환경 돌봄과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페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 실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고민했다.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나눔의 실천과 환경의 돌봄

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아트밤, 우크라이나 평화콘서트 수익금 고려인마을에 기부



아트밤(대표 지정현)은 최근 우크라이나 평화콘서트 수익금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기탁했다. (사진) 아트밤 공연기획사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을 위한 'Peace Concert' 끝까지 남은 이야기' 콘서트를 열고 수익금을 광주고려인마을을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에

기부했다. 지정현 아트밤 대표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해주고 싶어 여러기관을 찾던 중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게 됐다"며 "상처받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다인 기자 kdi@

문화예술위,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 동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송시경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최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ENDviolence'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 #ENDviolence 캠페인은 분절 및 재난,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다양한 폭력상황에 있는 세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교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전개하고 있다.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Take action, stop violence)"라는 슬로건 하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사람들이 상호 지목을 통해 온라인 릴레이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예술위원회 송시경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가올 시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쌈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 부부요양병원, 나눔 동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부부요양병원(병원장 문용진)이 대한적십자사 대표 나눔 확산 프로그램 '쌈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순환, 적십자 특별회비 기탁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대표이사 이영훈)은 최근 기부문화 확산과 적십자회비 모금 장려를 위해 적십자 특별회비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에 기탁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보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한식의 마음 스페셜(재)	00 두뇌공조(재)	15 헬로킴즈 과학교실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희망프로젝트 아프리카에 단비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영화가 좋다(재)	20 헬로킴즈 과학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한국인의 밥상(재)			00 뉴스브리핑
3	00 영상앨범 선(재) 3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문계공향 2(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폰740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두뇌공조	00 호적메이트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30 PD수첩	00 트롤리
11	30 KBS 뉴스라인	1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40 아이 러브 스포츠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출동! 슈퍼윙스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극한직업
08:00 딩동댕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가 폴리	14:45 한국의 들레길	<홈 백배 요즘 뜨는 태극 -안단만해, 궁금할 꼬(kho)아>
08:35 명탐정 피트3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겨울, 오지 기행 2부 -곰배령 부부의 설국>
09:05 슈퍼투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35 타타와 쿠마	16:25 명탐정 피트3(재)	
09:4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딩동댕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0일(음 12월 19일 戊辰) ☎ 010-9790-8237

<p>36년생 지출이 발생했지만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48년생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60년생 결기지를 버리고 몸통을 끌어안아 보자. 72년생 방법을 충동원해야 할 때이니라. 84년생 과욕하게 되면 절망이 따르는 법이다. 96년생 분명히 기회는 주어진다 사실을 알아. 행운의 숫자 : 41, 76</p>	<p>42년생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갈릴 수도 있다. 54년생 활용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무의미하다. 66년생 막연하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78년생 모난 그릇에 둥근 무늬를 넣으려는 격이다. 90년생 김은이니 행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다. 02년생 변화를 꾀한다면 발전을 기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6, 74</p>
<p>37년생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사극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49년생 길한 여권이 조성되어야 성과를 거두는 법이다. 61년생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우선 적용해야겠다. 73년생 예방에 철저해야 한다. 85년생 합쳐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해 잘 될 것이다. 97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6, 79</p>	<p>43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55년생 시일을 끌어왔던 바가 완성되어 가는 동세에 와 있으니라. 67년생 지난날의 영화를 회복하는 운세로 볼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되는 단계이다. 79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될 것이다. 91년생 비산은 국량으로 환원될 것이다. 03년생 성심으로 써 대해야만 하니라. 행운의 숫자 : 23, 88</p>
<p>38년생 한 지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동적인 국세에 놓인다. 50년생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에 대한 고찰이 긴요하다. 62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해 된다. 74년생 어렵잡아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86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니라. 98년생 뜻하는 바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5, 86</p>	<p>44년생 주변에 인연이 박한 이들이 보인다. 56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68년생 기묘한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으니 감안하고 들어가야 한다. 80년생 일상에서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92년생 선후를 가려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에 와 있다. 04년생 내부 사정까지 살펴야 무리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28, 66</p>
<p>39년생 빈틈없이 준비한 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만 하는 판국이다. 51년생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일이다. 63년생 마음먹고 있었던 바를 확실히 추진해야 할 때다. 75년생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라. 87년생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99년생 순리에 따르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31, 50</p>	<p>45년생 걱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57년생 오히려 전회위복이 될 수 있으니 느긋하게 마음먹자. 69년생 다 듣고 나면 전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81년생 간발의 차이로 우열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93년생 조건 없이 조력하는 이의 성의가 기록할 뿐이다. 05년생 동반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3, 75</p>
<p>40년생 예견되는 위험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년생 간접적인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64년생 꼼꼼히 살펴보고 완전성을 도모해야 후회하지 않으리라. 76년생 차선책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리라. 88년생 평상시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능히 해낼 것이다. 00년생 가장 일반적인 것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49, 62</p>	<p>34년생 괜히 헛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46년생 원격 조종도 괜찮은 방법이다. 58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70년생 부실한 국면에 대해서 주의한다면 의외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82년생 굳이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다. 94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행국이다. 행운의 숫자 : 46, 61</p>
<p>41년생 배려에 힘입어 풍성함을 누리게 운로이다. 53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65년생 한 번 놓친다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77년생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르리라. 89년생 입에 발린 덕담보다 속 깊은 충고에 귀 기울여라. 01년생 능숙하지 못한다면 속히 도움을 청하자. 행운의 숫자 : 44, 84</p>	<p>35년생 공들여 왔던 바가 궁극적인 결실을 보게 되리라. 47년생 만사를 저지하고 먼저 행해야 할 것이다. 59년생 과감하게 전환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 71년생 상당한 손실을 지르거나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리라. 83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행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95년생 연쇄적인 갑사로 이어진다. 행운의 숫자 : 22, 55</p>